

보람된 한해를 보내며

第4次 經濟開發 5個計劃 첫해인 丁巳年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國際經濟는 自國貿易保護主義 輸入規制等 만만치 않던 與件下에서도 우리韓國은 100億弗의 輸出目標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은 오늘의 國民의 執念과 誠實한 努力의 總和였음을 世界萬邦에 誇示하고도 남었다고 自負할 수 있습니다. 또한 食量增産으로 米穀의 自給自足은 自足의 範圍를 넘어 輸出까지 하게 된 豐饒를 이루었다는데 대해서 感懷가 큼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科學技術界도 이에 못지않은 大小慶事가 있었음을 들 수 있습니다.

韓國科學財團의 創設로 基礎科學및 應用科學의 根源의 支援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昌原技能大學의 設立은 技能最高管理者를 輩出하게 되므로서 技術技能의 向上은 勿論 技術技能人의 社會的 待遇를 높여주는 좋은 契機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今年은 우리技能選手들이 유트리에히트에서 열린 第23回 國際技能오림픽大會에 出戰하여 21個의 메달을 획득 綜合 1位로 世界를 席卷하는 快舉가 있어 巴야흐로 우리의 技能은 世界萬邦이 公認하게 꿈 되었습니다.

또한 古里原子力 發電所의 稼動으로 우리韓國은 世界에서 21번째 原子力發電國이되어 本格的인 原子力發電時代에 進入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새歷史創造의 一面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第4回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에 在歐韓國科學者가 參席 1,000餘名의 內外 科學者間에 科學知識과 技術交流의 場이 펼쳐졌으며 약진하는 祖國의 經濟發展을 보여줌으로써 韓國人의 矜持와 氣概를 심어주었으며 祖國을 위해 무엇인가 寄與해 보겠다는 決心을 갖게 하였습니다.

科總은 144個 學會團體의 總和大會를 열어 自發的인 維新理念의 生活化와 科學技術의 自立化 그리고 國家發展을 沮害하는 不條理 除去, 等を 決議하고 1980年代 科學韓國과 技術革新의 旗手가 될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科總은 새마을技術奉仕團의 組織을 強化하고 1마을 1과학기술자 技術결연을 200마을에서 300마을로 擴大, 科學營農과 所得增大, 生活環境 改善等 綜合開發에 技術指導를 해왔습니다.

지난 9월로 “과학과 기술”誌가 誌齡 100號를 내 놓았으며 특징으로 한국과학기술계의 近況과 展望을 分野別로 發表하여 科學技術界를 診斷하였습니다.

科學技術用語集 第2集이 마무리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제2집은 醫學用語 13萬餘 用語가 收錄 될 것입니다. 科總의 計劃된 事業도 거의 마무리져 가고 있습니다. 丁巳年을 얼룩지게 하였던 爆發事故, 炭礦事故 等は 생각만해도 몸서리 처집니다. 그러나 우리國民의 아름다운 同胞愛와 難關克服의 底力이 이 상처를 잘 아물려가고 있습니다.

實로 多事多難하였던 丁巳年이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協調와 聲援을 보내주신 政府當局과 江湖諸賢 그리고 會員 同志여러분께 감사드리며 送年人事를 결합합니다.

1977. 12. 24

會 長 金 允 基